

[TV]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최고 영화 생일선물로 받아 행복”

8년만에 ‘사생결단’으로 복귀한 영화배우 김희라
“류승범·황정민 등 연기 잘하는 후배 자랑스러워”



1970~80년대 강한 남성상을 보여준 대표적 중년 배우 김희라(59)가 영화 ‘사생결단’으로 8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다.
27일 개봉될 영화 ‘사생결단’에서 이상도(류승범 분)의 삼촌 이택조 역을 맡아 비중 있는 연기를 했다. 그가 연기를 다시 선보인 건 1998년 ‘짬’ 이후 처음.
명배우 김승호의 아들이기도 한 김희라는 ‘병태와 영자’(1979), ‘미워도 다시 한번’(1980), ‘아들의 자식들’(1981) 등 술한 한국 영화의 대표작에 출연하며 선 굵은 연기를 보여왔다.
90년대 이후 국회의원 선거 낙선과 사업 실패라는 시련을 겪었으며 특히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날도 어부와 읍직임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보였지만 영화 속에서는 오히려 그의 모습이 젊은 시절 마약에 찌들었던 삶을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김희라는 “영화를 수백 편 하면서 이렇게

좋은 영화는 처음 봤다”며 “아직까지 내 머리가 살아야 내 보다. 무척 기분이 좋다”는 표현으로 굉장하 흥취했다.
“마침 19일이 내 생일이다. 대한민국에 혁명이 일어난 날에 내 음력 생일이 겹쳤다. 이런 날 이런 영화를 선물로 받게 됐다. 정말 기분 최고다.”
김희라는 캐스팅한 데 대해 최고 감독은 “대학 시절 선생님의 ‘짜콕’(감독 임권택)을 보고 선망의 대상이 됐다. 어떤 감독이든 그런 분의 그런 존재감을 자신의 영화에 등장시킬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며 “선생님이 복귀를 준비하신다는 말을 듣고 얼른 먼저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 김희라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호흡을 잘 맞췄고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후배 황정민, 류승범을 향해 “도대체 어디서 연기를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단한, 연기 잘하는 후배를 둔 김희라가 자랑스럽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Advertisement for 'Living TV' health program, featuring text about health benefits and a small image of a person.

Advertisement for 'Digital Protection' (디지털 보청기) hearing aid,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small image of a hearing aid.

케이블·위성TV 20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Small advertisement for PBC (Pyeongbuk Broadcasting Corporation) with contact info.

Small advertisement for TBN (Taejeon Broadcasting Network) with contact info.

Small advertisement for BBS (Bogyeong Broadcasting Station) with contact info.